

# 2017년 개관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인문학 진흥 거점 자리매김

지역 문인 작품·문학사료 보존  
기획전시실·북카페 등 운영  
작가와 함께 문학길 답사 인기



지난해 열린 작가와 함께하는 도보 문학길 답사 프로그램 중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연간 수준 높은 군민 교육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해남 인문학 진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학관은 해남읍 연동리에 위치한 공립문학관으로 해남의 문학사를 정리해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인들의 작품과 문학사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말 개관했다.

해남 문학의 역사와 흐름, 김남주, 고정희 등 해남 출신의 대표 현대 시인들의 유품과 문학적 성과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상설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현지 작가 및 전문 강사를 초청해 수준급의 문학 창작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이대희 시인과 사:talk', '소설, 영화와 만나다', '수필창작교실' 등 일반 성인을 위한 문학 수업을 한다.

어린이들의 인문 감수성 증진을 위해 아동문학가를 직접 학교로 파견하는 '어린이시인학교'를 생활리에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들

의 성과도 가시적이다.

몇 년간 창작 교육에 참여했던 김연아 수강생은 지난해 제11회 심호문학상 신인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문학관의 전문성 강화와 연구자료 축적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전국학술대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높은 문화적·학술적 가치에 비해 발굴되지 못하거나 관심 밖에 있던 문학적 인물과 소재를 수면 위로 끌어내며 지역 문학관의 가치와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다.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순례문학관이 해남 인문학 진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우수 운영 사례는 타 지자체·기관의 선진 견학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일상적 삶에 문화적 삶이 스며드는 행복한 인문 진흥 도시 해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내실 있는 문학관 운영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새마을문고전남도지부

### 영광서 시·군임원 워크숍

새마을문고전남도지부(회장 박영수)가 영광 송이도 일원에서 각 시군 문고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문고 시군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14~15일 양일간 개최된 행사에서는 새마을문고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시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문고 조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바다쓰레기 정화 활동도 병행해 문화공동체운동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교육과 품격높은 사회 만들기에도 힘을 보탰다.

새마을문고운동은 '농촌 책보내기 운동'이 벌써 1951년 고(故) 엄대섭 회장이 3000여권의 도서를 기증해 사립무료도서관 개관하면서 시작됐다. 1961년 마을문고 운동으로 부흥했으며 1982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단체로 가입돼 지도와 육성 활동 등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다.

전남 지역 시군 문고지부는 독서생활화운동을 위해 대통령기독서경진대회, 피서지문고, 독서문화기행, 알뜰도서관시장, 가족퀴즈콘서트, 이동도서관, 벽화그리기, 조손가정도서관, 청소년대안치, 책과함께하는 체험활동, 지역문화재관리 등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등 독서생활화운동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목표=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섬 비엔날레 개최 등 군정 완성도 높인다

### 완도군, 정책자문위 출범

완도군은 최근 군정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제안을 위해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사진)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문화·관광, 농·수산업, 4차 산업,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등 군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자문 회의에는 민선 8기 공약 중 실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주요 공약을 선정해 보고하고 자문 위원이 해당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 위원들은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섬 비엔날레 개최 ▲기후변화 대응 신상품 개발 등 15개 공약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공약 사항 추진 계획을 보완하여 내달 중 주민 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공약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 6기와 7기에 쌓은 노하우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분들의 의견을 접목하여 공약 추진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기자 노트

### 감투싸움에만 연연하는 의원들



정은조

민선 8기 제9대 완도군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에 초선이자 무소속인 조영식 의원이 재선의원들을 제치고 부의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 뒷말이 많다. 선출된 부의장이 초선이고 주류 정당 출신이 아닌 만큼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선출 과정의 '막전막후'가 알려지고 의원간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꼬이면서 향후 의회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월 개원한 완도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과 무소속 4명 총 9명의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애초 민주당 의원 5명의 합의에 따라 허궁희 의원이 의장을 맡기로 하고 부의장엔 3선인 박선규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막상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1명이 무소속인 조영식 의원에게 표를 주면서 조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완도군의회 내부에선 민주당 의원간 대면대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부지리' 무소속 부의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으로 의장이 지목되면서 의장과 식사자리까지 꺼리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본을 짠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지만, 일단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한 만큼 그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될 일"이라면서 "이제 의회 운영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투표

결과를 놓고 서로 책임 공방을 하는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완도군의회는 3급 9명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의회다. 따라서 의원의 면면도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원구성 자체도 힘들고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부 타 지역의 소규모 의회에서는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제비뽑기'까지 하는 웃지 못할 일

이 발생하고, 의장과 부의위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같이 아무리 의회 규모가 작고, 의원 면면이 거의 바뀌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소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된다. 군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안결과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이다. 이제 의장·부의장 선출은 모두 끝났다. 주민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의원들은 이제 과거의 생각은 모두 버리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복지에 중심을 다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그만 의회 원구성을 두고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라도 완도군의회는 '작은 의회'의 특성을 살려 운영의 묘를 발휘해 '잘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군민들은 감투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연구하고 현장을 발로 뛰는 의원을 바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jhung@kwangju.co.kr

## '재활용 동네마당' 분리배출 문화 정착 일조

### 영광군, 울 8곳 추가 설치

영광군은 최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사진)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주택가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취약지역에 거점배출시설을 확보해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영광읍사무소, 만남의광장, 대신지구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었고 2022년에는 1억원을 확보, 영광읍 4개소, 백수읍 1개소, 흥농읍 1개소, 법성면 2개소 추가 설치로 관내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태양열을 이용한 CCTV가 설치돼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종이, 스티로폼, 캔, 유리병,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생활쓰레기 수거함으로 분류되어 품목별 발생량과 크기를 감안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고자 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원순환 정착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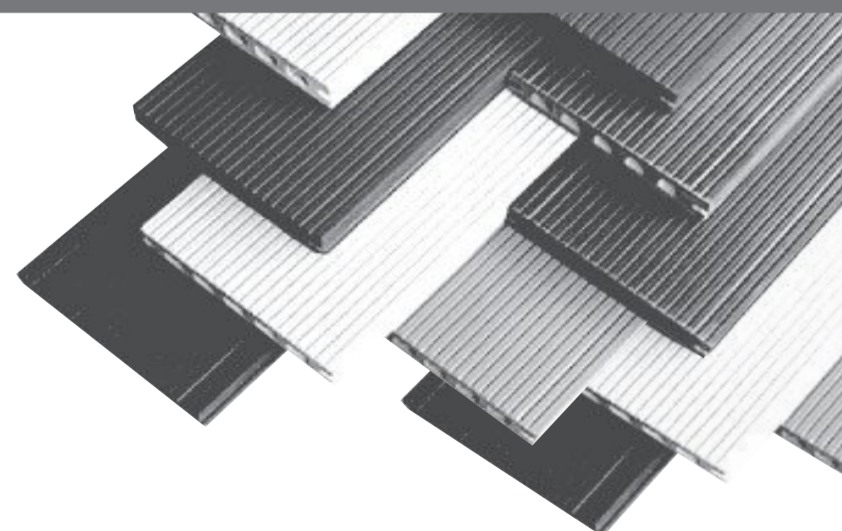
한편, 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상시배출로 주민편의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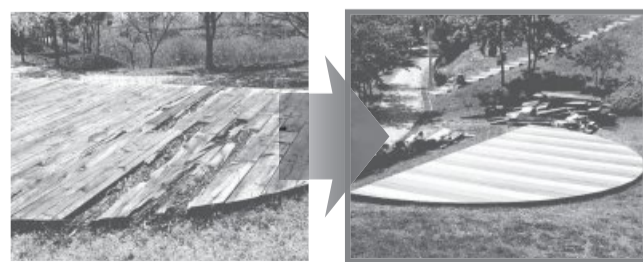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